복고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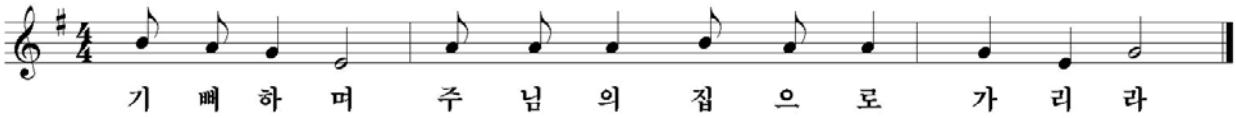
본당의 해 Ⅱ (2018-2020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2019. 12. 1. 대림 제1주일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로마 13,12) 교구 가톨릭사진회

제1독서 이사 2,1-5 **제2독서** 로마 13,11-14ㄱ **복 음** 마태 24,37-44

화 답 송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복음환호송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제2082호] 발행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무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 전자우편 hongbo@gjcatholic.or.kr | 전화 062) 380-2811 www.gjcatholic.or.kr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와 그 의미를 찾으며…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탄생할 "말씀"을 기다리는 하느님 백성들에게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라고 외칩니다. 주님의 빛이 밝아온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날 시간, 곧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에서 선포하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시는 사람의 아들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설레는 기다림도 있고, 피하고 싶은 기다림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기다림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 어떤 형태로든 인생에 의미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시기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과 맺은 관계를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그 사람 안에 머무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웃의 얼굴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사랑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듣고, 발견하고, 알고, 만나는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무르익어 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그 의미를 찾는 '깨어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이번 대림시기 동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느끼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와 그 의미들을 다시 찾으며, 우리 자신부터 새로워지라는 기회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기다림의 끝에, 우리에게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실 아기 예수님을 따스하게 품으시길 희망합니다.

김성기 요한크리소스토모 신부
해외유학(이탈리아)

토착신앙과의 갈등[2] III

"최근 어느 가엾은 노파의 죽음은 한국 선교 중에 일어나는 전형적 사건이었다."

1936년 2월
하롤드 헨리 *Harold Henry* 신부

든든한 지원군의 등장

이 요한은 무속적인 장례식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다. 신자들의 수가 외교인들의 수에 비해 적어서 요한 말에는 거의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 결국 요한은 박 신부님 본당의 신심 깊은 남자 신자들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기로 하고,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조문객으로 온 신자는 4명의 교리교사들이었는데, 한 본당이 아닌 세 본당에서 왔으며, 그 중 한 명은 약 80km나 떨어진 곳에서 왔다. 한국 사람은 대체로 뭔가 할 말이 있을 때는 언제고 당황하지 않고 하는데, 말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 교리교사의 경우는 더더욱 당황하는 기색이 없다. 한 교리교사는 한 시간 내내 어느 학술논문을 빌어 미신행위의 무용無用을 입증하기 시작하였다. 쓸모없는 논쟁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불만스러웠던 목포 성당 출신 교리교사는 두 시간 가까이 장황한 말을 늘어놓았다. 나머지 두 교리교사도 거들기는 했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다. 결국 미신행위 없이 장례식을 치르도록 결론이 났고, 사제는 장지까지 인력거로 이동하기로 했다. 이는 멋진 결정이어서, 나는 가기로 동의를 하였다. 더 나아가 특별 제작된 상여는 성당에 기증하기로 마무리되었다.

장례행렬의 모습

이교도들의 장례식을 살펴보면, 장례행렬의 맨 앞에는 사방에 유리창을 낸 모형 집 같은 것이 운구되는데, 그 안에는 망자의 옷가지와 신발류, 담뱃대와 담배가 놓여 있다. 내가 '혼백상자*soul cage*'[3]라 칭하는 이 상자 속에는 망혼이 담겨있다고들 한다. 시신을 묻게 될 때, 생전에 쓰던 살림살이(유품)들을 함께 매장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신자들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한국에서 사목하는 동료사제들

한국 출신 두 사제들과 앉아 있는 하롤드 헨리 신부.
그 왼편에는 그의 첫 주임신부였던 박 신부,
오른편에는 현 보좌신부인 김 신부.

---

1) 「The Far East」는 대한민국에 왔던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신부들이 본국(아일랜드)에 돌아가 자신들의 사목활동의 성과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글로 썼고, 이를 실은 잡지다.
2) 「The Far East」, Vol.19, "A Clash with Paganism" (1936. 2월). p3-4.
3) 전통적 장례 예식에서는 이를 혼백과 신주를 모시는 작은 가마로 영여靈輿라고 부른다. 편집자 주.

"은인의 상실"

미국 유학 중이던 2009년, 크신 분 두 분의 선종 소식을 들었다. 김수환 추기경과 최석우 몬시뇰. 워낙 크신 분들이라 잦은 취재 외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별반 없었으면서도 놀라움이 컸다. 한국에 있었다면 당연히 취재 현장에서 그 슬픔을 한껏 몸으로 느꼈으련만, 비행기로 10시간이 훨씬 넘어야 가닿는 먼 곳에 있던 터라 체감되는 상실감은 덜했다.

그런데, 슬픔과 상실감을 멀리 있어 누리지 못했던 탓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두 분에 대한 기억이 더 선명해진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그 자리와 그 순간에서 충분히 그 감정들을 느끼고 누려야 하는가보다.

최근 개인적으로는 큰 은인이신 한 분을 잃었다. 차동엽 신부님. 당연한 일이지만 생전에 내어주신 따뜻한 애정을 새삼 감사하며 밤차를 타고 빈소를 찾았다. 워낙 눈물에 인색한 성품이었지만 버스에서 내려 언덕을 오르면서부터, 빈소의 그림자가 보이면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생전에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인연을 맺으셨기에 빈소를 찾은 이들 역시 많았다. 열을 지어 조문을 하고 연도를 마친 뒤, 심야버스를 타고 다시 부랴부랴 근무지로 돌아왔다.

건강이 악화되어 최근 수년 동안 칩거를 하셨지만, 한창 때(?) 신부님의 대중 강연과 집필 활동은 놀라울 만큼 매력적이었다. 현대인들의 심성과 취향, 공허와 갈증의 원인을 충분히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맥을 정확하게 짚었다. 그분의 대중적 인기의 비결은 거기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된다. 물론, 근본적으로야 복음의 힘이리라.

빈소를 오가며 많은 생각을 했다. 엄청 큰 인물이셨던 두 분 어르신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큰 도움과 신뢰를 주셨던 은인, 생전에 아무리 큰 일을 하셨던 분일지라도 하느님 앞에서야 미소할 뿐이다. 영원하신 분께 의탁하지 않고서야 생전의 업적들이 무슨 그리 큰 성과일까. 그리 크고 많은 일을 하셨던 분들이 그러할진대, 그에 도저히 못 미치는 범부가 무슨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다른 이들을 가벼이 여기거나, 미워하거나, 힐난할 것인가. 나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한 반성으로 오가는 버스 길이 복잡했다.

은인을 잃었으니 인간적인 슬픔은 당연히 크다. 충분하고 기꺼이 슬퍼할 일이다. 그 다음은 내가 다른 이의 은인이 될 차례이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물질적으로는 물론이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애정과 신뢰,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책무를, 떠나신 이가 내게 주었다는 생각을 했다. 크게 줄 것이 없다면 작게 주고, 충분히 주지 못한다면 모자란대로 주면 그뿐이다. 어차피 하느님 앞에 작은 존재들이, 나누고 줄 것이 있어봐야 얼마나 될까.

그리고 가장 절절하고 힘든 후회는, "있을 때 잘하자"이다. 신부님을 지난 수 년간 얼굴도 못 뵈었다는 것이 내내 아프다. 결국은 '없을 때' 후회하기 마련이지만, 최선을 다해 '있을 때' 잘하자고 다짐한다. 연로하신 부모님께나, 평생의 반려자나, 동고동락하는 동료나, 함께 자란 친구나, 그 모두에게 있을 때 잘하자고 다짐해본다. 노력해도 잘 안되지만, 그래도 "애는 썼다"는 자부심은 있어야겠다. 또, 돌아가실 분은 아니시지만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이다.

박영호 안드레아
가톨릭신문사 대전 주재기자

기쁨과 보람과 감사함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소서

2019년 추계 사제연수회

11월 5일, 2019년 추계 사제연수회가 평생교육원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회는 미사를 시작으로 '현행 노동법 이해'라는 주제로 양한열 변호사의 특강과 '2020년 교구 예산계획 및 재정현황', '교구 미사거행지침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미사 강론 중에 김희중 대주교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사목자인 우리 자신이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특별 전교의 해를 선포한 지금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힘을 내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쉬는 교우, 새신자, 예비신자 교리 및 선교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자"고 당부했다.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평신도 사도직

평신도의 날 심포지엄

11월 16일, 교구 사목국과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제52회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성염 전 교황청대사관 대사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최현순 서강대 교수의 "평신도 사도직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의 및 좌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좌담회는 최윤복 신부(영산포 본당)가 진행을 맡았으며, 성염 전 교황청대사, 최현순 교수, 교구 청년기획팀 배지은 자매가 평신도 대표자로, 김순희 수녀(사랑의 씨튼 수녀회), 최종훈 신부(사목국 부국장, 성서사도직)가 각각 수도자와 성직자 대표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공동합의체적 정신의 구현"이었다. 특히, 현재 공동합의체적 정신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또한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공동합의체적 정신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되었다.

한편, 이날 미사에는 지난 13일부터 교구를 방문한 캐나다 에드먼턴 대교구장인 리차드 스미스 대주교도 함께 참례했다. 리차드 스미스 대주교는 "광주대교구가 에드먼턴 대교구에 사제들을 파견해 한인공동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자신을 환대한 "교구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장관 주세페 베르살디 추기경 교구 방문

11월 10일,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장관인 주세페 베르살디 추기경이 우리 교구를 방문했다. 베르살디 추기경은 교구청을 방문해 김희중 대주교와 집무실에서 환담을 가졌다. 다음으로 광주가톨릭대학교를 방문해 신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응원과 축복의 말을 전했다.

교구장 대주교님 동정

12월 1일 견진(독천)
12월 2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주교회의 사료목록화작업위원회
주교회의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운영위원회
12월 8일 견진(완도)

총대리 주교님 동정

12월 1일 견진, 사목방문(학다리)

라틴어 그레고리오 성가 미사

일시 : 12.14(토) 10:30
장소 : 북동성당 / 집전 : 윤영남 신부
문의 : 062) 380-2210~5

청소년사목국

떼제미사

일시 : 12.4(수) 20:00
장소 : 광주가톨릭청소년센터 경당
대상 : 기도가 필요한 누구나 / 문의 : 062) 380-2275

청소년분과장 연수

일시 : 12.8(주일) 14:00-17:00
장소 : 광주가톨릭 청소년센터
대상 : 각 본당 청소년분과장
내용 : 특별전교의해-청소년 · 청년 선교프로젝트
접수 : 12.4(수)까지 그룹웨어 신청
문의 : 062) 380-2271~2

청소년문화카페 꿈 "토탈공예"

일시 : 12.14(토) 14:00
장소 : 청소년문화카페 꿈(광주교대옆)
대상 : 청소년(12.6(금)까지 접수순 10명, 무료)
내용 : 크리스마스 소품 만들기
문의/신청 : 062) 380-2279

제47차 TEC피정

기간 : 20.1.10(금) 14:00-12(주일) 15:00
장소 : 광주가톨릭청소년센터
대상 : 각 본당 학생회임원(접수순 80명)
접수 : 12.15(주일)까지 그룹웨어 신청
문의 : 062) 380-2273~4

성소국

예비신학생 담임 학년말 연수

기간 : 12.9(월)-10(화)
대상 : 예비신학생 담임 신학생
장소 : 평생교육원
문의 : 062) 380-2280~1

차기 휴학신학생 모임

일시 : 12.20(금)
대상 : 2020년 휴학신학생
장소 : 평생교육원
문의 : 062) 380-2280~1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com FM 99.9 MHz FM 99.5 여수 MHz
페이스북 kjpbc99.9mhz 트위터 kjpbc

오늘의 강론 [월-토 (본방송) 06:50-07:00] [월-금 (재방송) 16:50-17:00]

12.2(월)-4(수) 문현철 신부(나주시노인복지관) / 12.5(목)-7(토) 김소진 신부(비아동 본당)

'2020년 프로그램 개편(12.2 시행)' 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내년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5·18에 대한 진실 규명을 염원하고 그 바람 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뤄지리라는 바람을 담아내고자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 보리라"(시편 85,12) 슬로건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편했습니다.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부들의 수다' [12.2(월) 14:10-14:45]

박대남 미카엘 신부, 정규현 시몬 신부, 이창훈 베드로 신부가 출연해 재치있는 입담으로 교회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문자를 통해 보내온 신앙생활과 관련된 고민도 풀어드립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가는 「오후2시-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종교 프로그램)」, 「오후 5시-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 프로그램)」방송을 들으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005(100원 유료)로 청취소감 등을 보내주시면 문자 소개와 함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교구민과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kccei.com

광주가톨릭문화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가톨릭갤러리 현
책더하기사랑 도서관 T. 062) 380-2218

2019년 겨울학기(12주) 수강생 모집

[사진-야외출사] 12.7(토)-20.2.19(수)/12회 수/품평 19:00-21:00, 토/출사 15만 원
[가야금] 11.26(화)-20.2.27(목) 화/10:00-12:00, 목/19:00-21:00 15만 원
[민요] 12.5(목)-20.2.27(목) 목/14:00-16:00 15만 원
[판소리고법] 11.29(금)-20.2.28(금) 금/19:00-21:00 15만 원
[색소폰] 12.5(목)-20.2.27(목) 초급/19:00-20:00, 중급/20:00-21:00 12만 원
[클라리넷] 12.5(목)-20.2.27(목) 목/20:00-22:00 16만 원
[플루트-그룹/평일] 11.27(수)-20.2.26(수) 오전/10:00-11:30, 야간/19:00-20:30
[플루트-그룹/주말] 11.30(토)-20.2.29(토) 10:00-11:30 15만 원
[플루트-개인] 12.2(월)-20.2.28(금) 요일 · 시간 개별 협의 초급/25만 원, 중급/30만 원
[바이올린-그룹] 12.5(목)-20.2.27(목) 19:00-21:00 15만 원
[바이올린-개인] 12.2(월)-20.2.28(금) 요일 · 시간 개별 협의 초급/25만 원, 중급/30만 원
[전통무] 11.27(수)-20.2.28(금) 수/10:00-12:00 또는 수,금/14:00-15:00 15만 원

• 인터넷 www.kccei.com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및 온라인 결제 가능 • 문의 : 062) 380-2210~5
• 교육입금계좌 : 광주은행 170-107-051747 (재)광주구천주교(교육원)

정의 평화 위원회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미사

일시 : 12.2(월) 19:00
장소 : 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
주제 : 지방정치 현황과 진단-광주전남지역
강연 : 공진성 교수(조선대학교)
문의 : 062) 380-2290

통신교리(우편 · 인터넷) 안내

- 본당 교리반에 나갈 수 없는 예비신자와 첫영성체 교리 대상 신자
- 다시 교리공부를 하고자 하는 신자

* 세례 받을 본당의 사제와 면담 후 신청서 작성
* '교구 홈페이지(www.gjcatholic.or.kr)-교구청 소개-사목국-통신교리 배너' 를 클릭하면 이용 안내 및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62) 380-2832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2019년 장애인 한마음 송년미사

일시 : 12.14(토) 16:00-19:00
장소 : 평생교육원 성당
담당자 : 김광용(010-2641-0278)

생애주기별기부 '나눔의 첫걸음' 안내

첫돌, 결혼, 생일, 취업, 축일, 승진, 개업, 퇴직, 회갑 등 의미 있는 날, 특별한 날의 기쁨을 난치병 환우와 미혼모자에게 나눠주세요. 소중한 나눔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문의 : 062) 510-2893

기관 · 단체

향심기도쇄신의날
일시 : 12.2(월) 10:00-16:00
장소 : 중흥동 성당(미사 있음)
문의 : 010-9111-5878

천호성지 12월 첫목요일 성시간 및 특강
일시 : 12.5(목) 10:00 성시간, 11:00 가정미사, 13:00 남종기 신부 특강(참가비 무료)
문의 : 천호성지피정의집 063) 263-1004

2박 3일 무료치유피정
기간 : 12.6(금) 18:00-8(주일) 15:00
장소 :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 광천터미널건너 13:00, 문화회관후문 13:10
문의 : 043) 213-9103, 010-4311-6363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일시 : 12.7(토) 09:20-11:30
장소 : 평생교육원 성당
내용 : 묵주기도, 미사(고해성사,전대사 은총)
문의 : 파티마세계사도직 010-6490-8475

골롬반 평신도선교사관심자모임(해외선교)
일시 : 12.8(주일) 14:00-17:00
장소 : 평신도선교사센터(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대상 : 만 23-38세 남 · 여
문의 : 02) 929-4841, www.columban.or.kr

바오로딸들과 함께 하는 감사음악회
일시 : 12.11(수) 19:00
장소 : 평생교육원 내 바오로딸서원
문의 : 062) 528-1004

포콜라레 성탄파티
일시 : 12.21(토) 15:00-19:00
장소 : 광주가톨릭청소년센터
대상 : 영성에 관심있는 누구나
문의 : 포콜라레 062) 222-2800

교구는 광주 · 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우리지역사회적 경제기업을 소개합니다.

순천 고들빼기 영농조합법인
www.rofoddl.com
순천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와 국내산 양념으로 만든 우리김치
고들빼기김치 500g 7,000원/1kg 13,000원
홍갓김치 500g 6,000원/1kg 10,000원
고들빼기피클 1kg 12,000원
구입문의 061) 745-4242 임선영
전남 순천시 별량면 개령1길 23

㈜장흥식품 www.cjfood.com
청국장명인이 국산콩과 국산천일염으로 냄새가 없도록 개발한 발효식품
건청국장 200g 16,000원
청국장가루 230g 18,000원
햇콩마루 된장 500g 13,000원
생청국장낫또 1팩 1,200원
구입문의 061) 863-0878 남하영
전남 장흥군 안양면 기산길 49-19

2020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내용 : 가톨릭 신학 26과목
원서접수 : 20.2.7(금)까지, 우편신청가능
문의 : 02) 745-8339,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제26차 해외선교사교육(2020년)
기간 : 20.1.13(월)-2.7(금)
장소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선교센터
대상 : 해외선교를 준비하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양성담당자
주관 :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
문의 : 02) 953-0613

임상사목교육(C.P.E.) 봄학기 모집
기간 : 20.1.18(토)-5.16(토)(화, 토요반)
장소 : 성가롤로 병원 CPE센터
문의 : 010-8702-6780

임상사목교육(C.P.E.)
일시 : 20.2.4(화)/2.8(토) 시작
장소 : 천주의 성요한 병원 CPE센터
문의 : 010-2671-8174

34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야캠프
일시 : 20.1.14(화) / 국가 : 캐나다, 필리핀
대상 : 청소년, 대학생, 가족 연수
문의 : 광주청소년수련원, 070) 4365-7297

61차 이태리 순례(2020년)
기간 : 20.5.3(주일)-15(금)(12박 13일), 450만 원
문의 : 010-9454-5648, www.terrasanta.kr 작은형제회 이스라엘 성지 한국 대표부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피정(올레 · 미사 · 기도 · 강의)
기간 : 12.30(월)-20.1.2(목), 20.1.6(월)-8(수), 20.1.31(금)-2.2(주일), 20.2.11(화)-13(목), 20.2.19(수)-20(목), 20.2.27(목)-29(토)
대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 064) 796-9181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 역사 · 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 · 오름 트레킹 (모든 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 접수 가능)
기간 : 12.14(토)-17(화)(추), 20.1.4(토)-6(월)(한), 20.1.13(월)-15(수), 20.1.17(금)-19(주일)(한), 20.2.1(토)-3(월), 20.2.7(금)-9(주일)(한)
*(추:추자도, 한:한라산 눈꽃산행)
연말연시 : 12.29(주일)-20.1.1(수) (일몰, 일출, 한라산 눈꽃 산행)
접수 : 02) 773-1463, 064) 756-6009

수 도 회

예수회 월례특강(무료, 미사봉헌)
일시 : 12.5(목) 14:00-17:00
장소 : 염주동 성당 소성전
주제 : 열등감 콤플렉스를 극복한 자캐오
강사 : 정무근 신부 / 문의 : 010-9884-9988

예수고난회-개방의 날
일시 : 12.6(금) 10:00-15:30
내용 : 성사, 강의, 미사(점심 무료)
장소 : 일곡동 명상의 집
문의 : 062) 571-5004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2일 : 12.7(토)-8(주일)/20.1.5(주일)-6(월)
3박4일 : 12.19(목)-22(주일)/20.1.9(목)-12(주일)
8박9일 : 12.26(목)-20.1.3(금)/20.1.28(화)-2.5(수)(신학생)
40일 : 12.13(금)-20.1.21(화)/20.4.14(화)-5.22(금)
장소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 010-4906-5722, 031) 953-6932

예수고난회-청소년지도강사양성교육
기간 : 12.14(토) 14:00-15(주일) 15:00
장소 : 일곡동 명상의 집
주제 : 놀자(놀면서 자기찾기)과정
대상 : 교리교사, 청소년지도자, 교사
문의/신청 : 062) 571-5004, 010-3465-5452

예수의 까리따 스수녀회 젊은이 모임(미혼여성)
일시 : 12.8(주일) / 장소 : 까리따스 역사관
문의 : 010-9169-7013

해넘이 피정
기간 : 12.29(주일) 16:30-31(화) 13:30
장소 : 왜관피정의집
참가비 : 19만 원(접수 후 입금)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문의 : 054) 971-0722, 010-9877-4739

성삼의 딸들 수녀회 성소 안내
일시 : 언제라도 문의 받습니다.
장소 :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문의 : 061) 382-2214, 010-4853-2114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모임
대상 :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여성
장소 : 원하는 곳(미리 연락)
문의 : 010-9353-1773 노아수녀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 12.6(금) 16:00
장소 : 평생교육원 3층 경당
주례 : 금년 전역 사제 (이건승, 이창현, 김대건 신부)
문의 : 062) 380-2843

목포가톨릭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
분야 : 시설관리 1명, 미화 2명
자격 : 관련분야 경력자 및 PC활용가능자 우대
문의 : 061) 280-5106(세부사항 홈페이지 참조)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0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 평신도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부문 : 1. 장학금 지원(학부, 석 · 박사 과정)
2.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 : 10.16(수)-12.16(월)
접수 : 우편 또는 전자우편(cafl@cbck.kr)
문의 : 02) 460-7533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기간 : 20.11.28(토)까지